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차승은**

이 연구는 시간압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압박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서의 성차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였다. 일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25-54세의 기혼의 대상자들만을 선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첫째,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와 성의 조합형태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취업남녀가 유사한 시간압박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비취업여성, 비취업남성 순으로 시간압박을 지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간압박을 증속으로 하는 순서화 로짓분석결과, 시간압박과 관련 있게 나타난 특성의 구성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특성과 관련된 특성 및 시간활용이 그들의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압박과의 관련요인들이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 다양하였다. 교육수준, 소득, 직종, 근무형태, 요일, 자녀연령을 비롯하여,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전화통화시간까지도 시간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시간압박, 시간결핍, 시간부족, 주관적 시간, 젠더 차이, 시간활용

I. 들어가는 글

개인의 삶의 시간표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과 가족, 여가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끊임없는 이해관계를 이루며 제한된 24시간 내에 서로 경쟁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시간도 때로는 조정되고, 돌봄시간은 노동시간의 장단에 따라 협상되며, 개인의 자유시간은 그 와중에 끼여 나간다. 또한 잘 짜여진 시간표도 전화통화 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간섭받고 재조정된다. 복잡한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개인은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행위를 더 끼워 넣을지, 대체할 것인지,

*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보건대학원 가족학과 연구원 | haibin@hanmail.net

하고 있는 일은 또 얼마나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비교하고,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은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표 속에 활동들을 채워 나간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개별 일정과 시간표는 개인이 사회를 경험하는 방식이자 그 결과물이며(Elias, 1992), 개인은 자신의 일정표를 소화해 가면서 시간을 경험한다고 한다. 하루 24시간 주7일이라는 시간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자본 결핍과 유사한 의미로 시간 결핍(time deficit, time poor)의 개념까지 등장하였다(Adam, 1993). “빨리 빨리”가 생활화된 우리 한국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간연구들을 고찰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생활시간이 어떠한 활동들로 구성되고 짜여 지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개별활동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고 소비되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활동에 관심을 둔 연구로는 가족여가의 종류와 그 시간량을 소개한 이승미·이기영의 연구(1998), 농촌가족에서 나타나는 주요활동과 그 시간측정에 관한 연구(이기영·조희금·김외숙·이승미·홍두승·조홍식·김유경·김주희, 2006), 그리고 여가시간이 어떠한 활동들로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문숙재·윤소영·윤지영, 2005; 한신갑·박근영, 2007)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한편, 생활시간의 소비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특성을 지닌 개인별로 특정 활동시간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았다. 가령, 개별 활동별로 특정 집단내/집단간 시간소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관련연구로는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김정석, 2005; 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손문금, 2005; 유소이·최윤지, 2002; 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송혜림·이승미·문지선·송지원, 1996)가 대체로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에 오면서 주제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인의 생활시간과 시간활용(김진욱, 2006),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시간활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진미정, 2008) 등으로 연구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시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꾸준히 있었고, 통계청의 생활시간 자료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왔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양적시간에 집중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주관적 시간을 주제로 한 논의는 식민화된 시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 박영도 외(2000)

의 연구나, 주부의 시간제약에 관한 연구(이승미·이기영, 1990), 그리고 최근에 일/여가시간배분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경험의 차이를 탐색한 차승은(2008)의 연구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른바 “주관적 시간”은 24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좌표화되어 있는 객관적 시간과는 차별적이다. 주관적 시간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통제되고, 교환/협상되며, 상이한 가치들이 경쟁하게 되는 시간의 정치성(politics of time)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Daly, 2001).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경험하는 시간 및 시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건강, 심지어는 가족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중간요인이 된다는 논의(Schneider and Wait, 2005)와 연결되면서,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국내는 물론 서구에서조차 시간의 주관적 영역, 즉, 인식되는 시간이나 삶의 속도에 대한 실증연구나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차승은, 2008).

이 연구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과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경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시간경험 가운데 특히 시간압박(time pressure) 개념을 중심으로 시간압박을 남녀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성차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성차 관점은 성에 따라 경험하는 일/가족역할이 다를 것을 전제한다(Bernard, 1967; Daly, 2001에서 재인용).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의 상이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West and Zimmerman, 1987). 때문에 시간압박에서의 남녀 차이에 관한 정보는 성별에 따른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시간압박을 이루는 주된 활동의 상징적 의미, 그것이 남녀가 수행하는 역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압박인식의 다양성과 성별 차이

일찍이 시간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의 차이에 주목한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인기로의 전이 시기에 있는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마네스와 하데스티(Maines and Hardesty, 1987)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남성은 이루어야 하는 생애 과업의 순차로 시간을 경험한다고 한다. 즉, 학교 졸업 후, 취업(혹은 군대) 이후 결혼과 같이 선형적으로 시간을 경험한다

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이 경험하는 시간은 다양한 생애과업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순환적(cyclic)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Hall(1983)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다양한 활동을 순서에 맞추어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여성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동시행동(multi-tasking)의 양이 많은 특징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성별 시간경험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80년대에 소수연구를 통해 소개된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지 않다가, 극히 최근에 와서 남녀의 시간압박(time pressure)과 직업역할을 연계한 실증연구(Matingley and Sayer, 2005; Normaguchi, Melissa and Bianchi, 2005)에서 그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연구들은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perspective)과 남녀의 성역할 중요도를 우선시한 젠더론(gender perspective)을 활용하여 남녀의 시간부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용시간론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수행이 상이한 시간인식을 동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람들의 시간배분방식, 즉 시간표가 다르게 운용된다는데 강조점이 있다. 직업역할에 대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는 남성과 가족역할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여성은 상이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Becker and Moen, 1999; Wait and Gallagher, 2000). 그런데, 이러한 시간경험도 여성이 직업역할 획득을 통해 여성의 삶에서 직업역할 비중이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남성과 유사한 시간경험, 즉 직업역할이 우선시되면서 여성이 수행했던 다른 역할의 가용시간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남성과 유사한 시간경험하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에 반해, 젠더차이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간배분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요구나, 개인이 그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Ferree, 1990; Thomson and Walker, 1989). 이 논의대로라면, 좋은 엄마와 아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성공한 아버지나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동일한 역할 조합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시간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성에게 가족역할이 중요하게 남아 있는 이상 여성이 직장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과 돌봄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교대 노동(Second Shift)이 계속되는 한 여성은 남성보다 극심한 시간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보고 있다(Hoshchild, 1989). 이 젠더론에서는 가용시간의 양이나 시간표의 구성에서 남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역할에 대한 우선성이 어느 시간에 있는가에 따라 시간경험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두 관점이 시간경험에서의 남녀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취업기회 혹은 직장에서의 근무조건이 남성에 비해서는 제한되어 있고, 불평등한 측면이 남아 있다는 점, 또한 취업한 여성에게 가족역할의 부담이 지워지는 사회적 구조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더 많은 시간압박을 경험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두 관점이 일치점을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압박 수준이 높고, 더 바쁘다고 지각할까? 그 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시간압박에서의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영역별 활동시간과 남녀의 시간경험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 경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가지 활동을 오래하는 것보다도 제한된 시간내에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가 많은 경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한다(Hendricks and Hebdricks, 1976). 그런가 하면, Daly(199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행위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역시 시간압박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는 시간부족과 관련 논의들이 일하는 시간 대 자유시간(혹은 여가)의 비중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베커(Becker, 1965)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은 짧고 자유 및 여가시간이 많으면 시간부족을 덜 지각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바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각하는 시간의 양이 노동과 여가시간의 제로섬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여가시간의 절대적 증가가 전체적인 시간여유분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도 있다. 실제로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가”는 다양한 활동으로 분화되면서, 그 각각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도 증가하였다(이승미·이기영, 1998; 한신갑·박은영, 2007). 이러한 여가활동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개개인은 시간표를 쪼개는 다양한 전략들이 동원하게 된다. 가령, 사람들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저녁시간을 조정하거나 설거지 시간을 줄인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가 “여가의 소비”(Schor, 1992)라는 논의에 등장한다. 여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들이 제한되거나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여가의 증가는 시간압박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시간부족 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에 와서 돌봄시간의 증가와 시간부족 및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미국인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비앙키와 그 동료들(Bianchi, Robinson and Milkie, 2006)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시간사용의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자녀와의 시간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자녀에게 투여하는 시간들, 이를테면, 책 읽어 주는 시간, 놀이시간 등이 남녀를 불문하고 증가하였다. 이들은 또한 혼자 즐기던 여가나 취미활동도 자녀를 동반하거나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들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상품들이 자본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사람들의 시간표에서도 자녀를 동반한 시간의 비중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와 가사노동의 한 영역인 돌봄시간이 시간부족현상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주제들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학자들의 관심의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동시간은 시간부족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새로운 주제라 하겠다. 일찍이 급격히 발전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 역시 개인의 시간에 속도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요 시간압박 요인으로 인식된 바 있다(Daly, 1996). 실제로 일/가족 상호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과 가족의 접점(interface)로 이동거리 및 시간에 주목하였다(Bianchi, Casper and King, 2005). 일과 가족역할은 상이한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두 영역을 넘나드는 개인들에게 이동시간 역시 생활시간의 편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부족과는 조금은 다른 주제이기는 하나 최근 수행된 수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동시간이 수면부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asner, Fomberstein, Banks, William, Rosa and Dinges, 2007). 이는 일터와 가정을 왕래하고, 그 사이사이 갖은 일처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실제로 수면시간을 압박한다는 실증적인 증거이며, 또한 시간압박의 정서와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여가와 돌봄시간 거기에다가 이동과 통신시간까지 시간부족의 관련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취업, 남녀의 가사노동의 분담으로 가뜩이나 여유가 없어진 남녀의 시간표가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로의 시간을 조율(synchronizing)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남녀 모두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강조됨에 따라 남녀 간에 차이가 나던 운용방식이 점차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Daly(1996)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그는 “가족여가”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여성은 직업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러한 가족활동이 여성의 시간운용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획일적이고 선형적 시간(monochronic time)의 지배를 받던 남성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때로는 돌봄시간까지 남성의 시간표를 차지함에 따라, 남성(특히 자녀를 둔 아버지) 역시 여성이 경험하는 순환적, 복합적 시간(polychronic time)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심각한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활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 그러한 관련성에서 남녀차이를 탐색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남녀의 시간활용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그간 축적되어 왔으나 그러한 시간활용의 차이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 남녀차이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서구에서조차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3.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시간압박

앞서 밝힌 성이나 취업여부 이외에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직업특성, 요일특성 등이 남녀의 시간경험과 관련이 있음이 서구의 시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간인식에 대한 기존의 정보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가 더 필요함을 미리 밝힌다. 우선 연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앞서 시간부족 경험이 수행하는 활동의 양과 종류와 연관이 있다는 서구연구들의 지적을 언급하였다. Robinson(1990)의 연구에서는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나 그 수로 볼 때, 부모역할, 직업역할,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 기타 사회활동 등이 모두 밀도 높게 몰려있는 중년기가 생애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속도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경제적인 지위도 시간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서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더

1) Daly(1996)는 남성의 시간을 획일적, 규격화된 시간으로 그리고 여성의 시간을 순환적, 복합적인 시간으로 규정한 전통적인 논의가 후기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남녀의 시간을 바라보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여성들이 발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남녀의 시간은 성에 의해 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Matingly and Sayer, 2006; Nomaguchi et al., 2005). 또한 직종으로 보면, 전문직이 시간부족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ly, 1996),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직보다 서비스직이 시간부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atingly and Sayer, 2006). 일주일 중에 어떠한 요일인가에 따라서도 시간부족의 인식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중이 주말보다 바쁘다고 인식하지만(Daly, 1996), 최근 미국의 실증 연구에서 따르면, "주말 러시(weekend rush)"라는 말이 의미하듯, 주말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Bianchi et al., 2006).

이상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국내 시간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시간 압박의 수준과 그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남녀 차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성과 연령대에 따라 시간압박의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4년 생활시간자료(통계청, 2004)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전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자료와 25-54세 기혼남녀만을 추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별 시간부족인식의 경향을 파악,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2004년 자료 중 25-54세 기혼남녀자료를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과 관련성 있을 요인과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사회적 맥락 및 활동시간이 남녀의 시간부족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순서화 로짓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의 자료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시간압박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자료 중 10대의 자료를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대상자가 포함된 자료(n=26,277)와 2004년도 생활시간 자료 가운데, 25-59세 연령의 기혼남녀 11,976명의 둘째날 생활시간일지(n=11,976)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김정석(2006), 손문금(2005)의 연구에서 생활시간자료의 둘째날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 하위표본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0.19세 이었고, 여성의 평균연령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평균교육수준은 고졸학력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72.5%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주기별로 대상자들을 구분해 본 결과 어린 자녀와 초등학교이상의 자녀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40%를 육박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만을 둔 부모는 전체의 31.8%로 그 다음 순위였으며, 자녀가 모두 초등학교 이상 연령인 경우도 전체의 10%가 넘었다. 한편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부모도 전체의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시간압박: 생활시간자료에 나타나는 단일문항의 시간압박 문항을 활용하였다. 생활시간 자료에서는 이 시간압박을 단일문항의 4점짜리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간수준을 통합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준을 3단계(“아주 바쁨”, “그런대로 바쁨”, “전혀 바쁘지 않음”)로 재구성하였다.

개별 활동시간: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이 어떠한 활동들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임금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시간, 이동시간, 그리고 통신시간 변수를 구축하였다. 임금노동은 생활시간자료에서 주 노동시간과 일과 관련된 업무시간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가사노동에는 음식차리기, 세탁, 설거지, 청소 등 일체의 가사노동활동과 가사서비스 활동(세탁소, 수리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단, 쇼핑과 구매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노동은 자녀와 관련된 돌봄행위(씻기기, 재우기, 책읽기, 숙제봐주기 등)로 구성하였다. 여가시간은 취미활동, 각종 관람행위에서부터 독서, 체력단련을 비롯한 육외 활동을 포함시켜 여가시간 활동을 개념화

<표 1> 남녀의 시간가용시간 인식 수준

(단위: %)

	전체		2004 전체		2004 (25-54세)	
	2004 전체	2004 (25-5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항상 바쁘다	24.10	29.45	25.30	23.00	32.42	26.45
때때로/가끔 바쁘다	65.50	66.44	65.20	65.40	64.08	68.81
전혀 바쁘지 않다	10.40	4.10	9.50	11.60	3.49	4.72
평균	-	-	-	-	-	-
Adjusted*	-	-	2.32	2.10	1.86	2.07
F	-	-	25.4 ***		179.62 ***	
N	26,277	11,976	12,071	14,206	5,962	6,041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하는 가용시간이 많은 방향이다. 2004년 전체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전체 대상자를 의미한다. 2004_하위 는 2004년도 자료에서 25-59세 유배우자 남녀를 의미한다. Adjusted model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임금수준 그리고 취업여부가 통제되었다.

자료: 2004년 생활시간자료, 통계청

하였다. 이동시간은 각 활동 영역 내에서 이동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간들의 총합으로 구성하였다²⁾. 통신시간은 전화통화시간을 활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임금, 근무형태, 가족 내 자녀연령, 요일이 분석되었고,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명목 및 서열변수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IV. 연구결과

1. 시간압박인식의 차이: 성, 연령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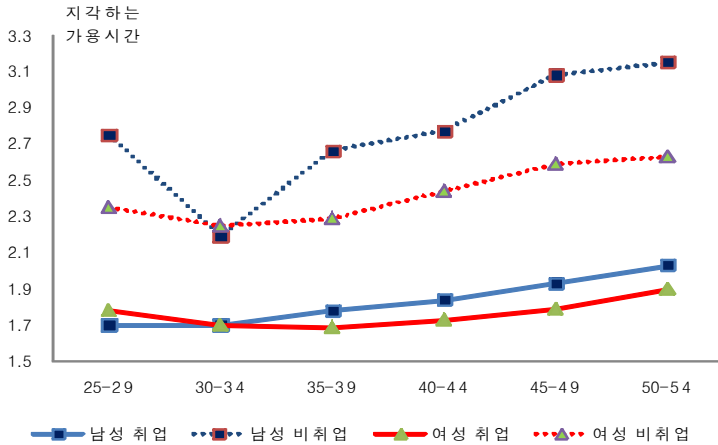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을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04년 생활시간자료에서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전체대상자를 중심으로 성별 시간압박 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항상 바쁘다”의 응답비율 만을 비교한다면, 남녀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연령과 교육수준을 비롯한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의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에서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가용시간 평균이 2.10로 남성의 2.32점보다 더 낮았다. 즉, 다른 특성이 고려된 상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용시간이 적다는 서구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방향이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상 시간압박을 가장 강하게 겪는다는 25-59세 연령대에서도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2004년 생활시간자료에서 25-59세에 해당하는 기혼연령층만을 추출한 2004년(25-59세) 표본에 대한 분석을 따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흥미롭게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압박을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이후의 평균 가용시간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지각하는 가용시간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중장년층 기혼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압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압박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직업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가용시간론의 관점을 검증

2) 각 활동시간 내에서 이동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간들을 합산하여 총이동시간을 산출하였다. 실제로 일과 가족영역을 넘나드는 이동시간은,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리고 퇴근과 출근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병원 방문, 친지방문 등등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활시간자료에서는 각 행위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시간을 제시할 뿐, 이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출발점과 도착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여기에서는 각종 업무와 가족 일을 위해 이동한 총이동시간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성과 연령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인식: 2004



주: 2004년 자료 가운데 하위집단 25-54세 기혼남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각각 취업남성 5,710명, 비취업남성 340명, 취업여성 3,292명, 그리고 비취업여성 2,760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2004년 생활시간자료, 통계청

해 보기 위해 성과 취업여부를 교차하여 나타나는 네 개 집단 (취업남성,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비취업남성)별로 시간압박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업남성과 취업여성은 두 비취업자 그룹에 비해 가용시간이 적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반면에 남녀차이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취업한 남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도 하나, 취업남성은 20대에 가장 바쁘다고 지각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지만, 취업여성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가장 가용시간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에 따라 바쁘다고 인식하는 시기는 조금 다르면서도 취업여성이 취업남성보다 바쁘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실제 비취업남녀 집단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차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가용시간론에서 역할 조합이 같으면 시간압박수준도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지적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취업여성이 비취업남성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비취업 집단 내에서는 기

존의 젠더 가설이 지지되었다³⁾.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간인식에서 남녀차이

시간압박을 종속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순서화 회귀(ordinal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⁴⁾. 남녀에 따라 시간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Matingly and Sayer, 2006)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남녀차이가 두드러져서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시간경험과 관련 있게 나타난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의 연령구성, 가구 내 임금구조, 그리고 근무형태에 해당되었다. 연령의 경우, 50-54세 집단과 비교하며, 젊은 집단에 속할수록 순차적으로 시간부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을 보게 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해당할수록 시간압박을 지각할 계수값이 높았다. 근무형태로 살펴보게 되면, 무직에 비해서는 시간직, 종일직 근무자가 더 시간에 쫓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에서의 일을 얼마만큼 하는가가 남성의 시간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 내 임금구조가 맞벌이인 경우도 남성이 바쁘다고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정 내에 어린자녀가 있는 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요일의 차이나 직종 차이는 남성의 시간압박 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시간경험의 관련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특성이 발견되어서 흥미롭다. 두 번째 여성의 칼럼에 나타난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여성의 결과에서 여성 본인의 연령은 시간경험을 구성함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3) 30-34세 연령대 비취업남성과 비취업여성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30-34세 비취업남성의 수는 이 자료에서 50여명 남짓으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또한 이 연령대에서만 왜 비취업남녀가 동일수준으로 시간부족을 인식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비취업남성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직업을 전환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직업을 구하고, 가족을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예상되며,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비취업여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시간부족인식을 보였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다.

4) 이 분석에서는 기준이 되는 집단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이다. 순서화 로짓에서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갖으면서 값이 크다는 것은 준거집단, 여기에는 시간압박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계수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 압박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은 남성의 표와 중요한 차이점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앞서 남성의 경우 자녀연령, 돌봄 노동 그리고 기타 다른 직업특성이 모두 고려된 이후에도 시간압박경험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시간압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완화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에 있어서는 낮은 소득과 비교할 때, 중간소득 집단이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서처럼 임금수준에 따른 순차적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비선형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직종과 시간압박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를 보게 되면, 생산노동직과 비교해서, 사무 및 서비스직이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전문직 역시 생산노동직 종사자에 비하면 시간압박을 약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에서 동일하게 드러난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근무형태, 요일 그리고 자녀연령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여성에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한 경우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의 경우 남녀모두 동일하게 종일제나 시간제 근로자가 무직인 경우보다는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과 주중의 요일 차이 역시 남녀의 시간압박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긴다는 점에 있어서 남녀모두 주말과 주중의 특별한 구분 없이, 주 7일을 모두 바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주중이 주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결과(Bianchi, Melissa and Robinson, 2006; Daly, 2001)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연령은 남녀모두에서 시간압박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표 2>에 제시한 결과는 돌봄 활동 및 기타 활동시간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차이이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 자신의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남녀의 시간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신체, 정서 및 발달과 반응하여 부모들의 시간표가 조율(synchronize, Avery and Stafford, 1991) 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남성의 경우 가구내 자녀가 없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의 경우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할 때만 유의미한 관련성이 관찰되었고, 자녀가 영유아기를 벗어난 집단에서는 남성의 시간압박과 자녀연령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분석결과만으로 판단하기 무리이기는 하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내지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압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비해, 여성의 경우 가구내 자녀 없는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에 대한 순서화 로짓(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남성		여성	
	b	s.e.	b	s.e.
연령(ref: 50-54세)				
25-29	0.64	(0.17)***	-0.05	(0.19)
30-34	0.51	(0.13)***	0.04	(0.17)
35-39	0.35	(0.12)***	0.21	(0.16)
40-44	0.35	(0.11)***	0.17	(0.16)
45-49	0.15	(0.10)	0.15	(0.15)
교육수준(ref: 중졸이하)				
4년제 대학이상	0.29	(0.11)**	0.47	(0.12)***
전문대 졸	0.05	(0.13)	0.31	(0.13)*
고졸	0.03	(0.09)	0.06	(0.09)
월평균소득(ref: 임금 거의 없음)				
400 만원 이상	1.05	(0.39)**	0.18	(0.40)
300-400만원 미만	0.79	(0.38) +	0.30	(0.28)
200-300만원 미만	0.76	(0.38) +	0.35	(0.17) +
100-200만원 미만	0.62	(0.37)	0.24	(0.11) +
100만원 미만	0.31	(0.38)	-0.19	(0.10) +
요일(ref: 주말)				
주중	0.04	(0.06)	0.09	(0.06)
가구 내 자녀연령 구성(ref: 가구내 자녀 없음)				
6 세미만	0.25	(0.09)**	0.72	(0.10)***
자녀 모두 학동기	0.02	(0.09)	0.33	(0.09)***
6세 미만 및 학동기 자녀	-0.10	(0.12)	-0.01	(0.13)
근무형태(ref: 무직)				
종일제	1.83	(0.38)***	2.03	(0.19)***
시간제	1.24	(0.39)***	1.11	(0.20)***
직종 (ref: 생산 및 노무직)				
전문직	0.04	(0.09)	0.27	(0.15)*
사무 및 서비스직	0.12	(0.09)	0.37	(0.11)***
가구 내 임금구조 (ref: 비맞벌이)				
맞벌이	0.28	(0.06)**	0.11	(0.16)
τ_1	-0.60	0.19***	-1.35	0.21***
τ_2	3.91	0.21***	3.30	0.21***
Chi-square	540.68***		1,069.02***	
Pseudo-R	0.09***		0.16***	
N	6,014.00		5,962.00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Pseudo-R수치는 Cox와 Snell의 값을 사용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각 영역별 활동시간이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집단과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 그리고 자녀가 모두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자녀가 모두 초등학교 이상인 집단)의 시간압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모두 학동기 이상인 경우 돌봄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시간압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시간압박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모두 학동기에 있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여전히 자녀에 반응적임을 알 수 있다.

3. 활동시간과 시간인식에서 남녀차이

여기에서는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이 어떠한 활동들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 따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되기 전의 모델에서는 남성의 시간경험은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 그리고 돌봄노동시간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통제모델에서는 돌봄활동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의 관련성은 남아있었다. 예상대로, 임금노동시간이 약 5 시간 미만인 집단과 비교할 때, 임금노동이 8시간 반 이상 길수록 시간압박 지각 가능성도 높아지는 방향이었다. 이동시간 역시 1시간 미만일 때보다는 그 이상 일 때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과 시간 부족의 관련성은 임금노동이나 이동시간과 정반대의 패턴 즉, 여가시간이 40분미만 일 때와 비교해 보면, 여가시간이 2시간 이상 길 경우 시간압박을 지각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이었다. 이 순서화 로짓의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여가가 시간압박 정서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여가를 40분 이상 즐길 수 있는 남성은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는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심지어 전화통화시간까지도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다. 그 방향성 역시 남성과 동일하게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이 긴 경우 시간압박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이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성에게는 돌봄노동 시간과 가사노동 역시 여성의 시간압박 경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통화시간은 전화를 평균 30분에서 1시간정도 하는 집단이 시간압박을 지각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남성과 동일하게 여가시간을 더 많이 즐기는 점과 시간압박 경험은 부적 선형의 관련성을 나타내

<표 3> 각 영역별 활동시간을 독립변수로 한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에 대한 순서화 로짓(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남성				여성			
	기본모델		통제모델		기본모델		통제모델	
	b	s.e	b	s.e	b	s.e.	b	s.e.
임금노동시간 (ref: 5.5 hr <=)								
> 8.5h	0.66	(0.07)***	0.35	(0.08)***	1.56	(0.09)***	0.68	(0.10)***
5.5-8.5h	0.23	(0.09)**	-0.04	(0.09)	0.99	(0.09)***	0.10	(0.10)
이동시간 (ref: 1hr <=)								
>1.8 h	0.24	(0.07)***	0.12	(0.07)*	0.22	(0.07)***	0.19	(0.07)*
1.5-1.8h	0.08	(0.12)	0.04	(0.13)	0.20	(0.13)	0.26	(0.13)+
1-1.5h	0.14	(0.08)	0.06	(0.08)	0.01	(0.08)	-0.01	(0.08)
여가시간 (ref: 0.8hr <=)								
> 2h	-0.09	(0.07)	-0.12	(0.05)+	-0.32	(0.08)***	-0.27	(0.08)***
1.3-1.8h	-0.06	(0.08)	-0.07	(0.08)	-0.27	(0.08)***	-0.24	(0.09)***
0.8-1.3h	-0.03	(0.09)	-0.04	(0.09)	0.04	(0.08)	0.05	(0.09)
돌봄노동시간 (ref: 0.5 <=)								
> 1h	0.22	(0.12)+	-0.08	(0.13)	0.23	(0.07)***	0.21	(0.09)+
0.5-1h	0.33	(0.12)**	0.08	(0.12)	0.26	(0.09)***	0.12	(0.10)
가사노동시간 (ref: 1.5 hr <=)								
> 3.01h	0.02	(0.10)	0.02	(0.10)	0.19	(0.19)	0.20	(0.09)+
1.51-3.00h	-0.05	(0.10)	-0.04	(0.10)	0.03	(0.10)	-0.06	(0.11)
전화통화시간 (ref: 0.5h<=)								
> 1hr	-0.16	(0.21)	-0.14	(0.21)	-0.14	(0.13)	0.09	(0.14)
0.5-1hr	0.02	(0.10)	0.04	(0.10)	-0.27	(0.08)***	-0.16	(0.09)+
Threshold								
τ1	-2.85	0.13***	-0.76	0.22***	-0.60	0.19***	-1.56	0.22***
τ2	1.27	0.12***	3.77	0.23***	3.91	0.21***	3.14	0.23***
Chi-square		152.90***		572.04***		642.94***		1,179.18***
Pseudo-R		0.08***		0.11***		0.10***		0.18***
N		6,041.00		6,014.00		5,962.00		5,962.00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Pseudo-R 수치는 Cox과 Snell의 값을 제시하였다. 통제모델에 제시된 수치는 <표2>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었다. 이 역시 인과의 양방향성이 가능하겠으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성이 시간상으로도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활동들이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통제모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시간경험이 남성에 비해 다양한 활동들이 관여하는 복잡성을 띠는 서구의 논의에서 지적하는 바와 유사한 경향성이라고 판단된다.

V. 논의 및 결론

Daly(1996)에 따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일을 일정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고민거리라고 한다.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시간압박이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가족 및 기타 활동시간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004년 생활시간자료 중에서 25-59세 기혼남녀 11,976명의 둘째날 시간일지를 분석한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생활시간자료에서 남녀의 시간압박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20세 이상 성인 전체를 보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25-59세의 기혼, 일하는 연령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나는 성차를 직업역할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성과 취업여부의 조합을 구성한 결과, 취업남성과 취업여성의 시간압박수준이 매우 유사한 가운데, 비취업여성, 비취업남성 순서로 시간압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성은 전업주부보다 바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 수준은 취업남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직업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시간압박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는 취업여부가 시간압박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기존의 가용시간축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연구결과와 다른 나타나는 부분은, 시간압박경험에서 만큼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비록 큰 차이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으나 서구이론에서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취업남성들이 취업여성 못지않게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이처럼, 남녀 시간압박의 평균 차이가 실제로는 취업여부에 의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녀에 따라 결정요인의 종류와 방향성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연령, 맞벌이 여부가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직종이 여성의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시간압박과

연관있는 동일요인으로 나타난 교육수준과 소득, 그리고 자녀연령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오직 근무형태와 시간압박의 관련성, 즉, 일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종일제, 시간제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간압박을 높게 지각한다는 점에서만이 남녀가 일치된 방향성을 보였다.

셋째,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시간활용의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전화통화시간까지도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활용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을 통해 남성의 시간경험은 그들의 직업경력, 직장 그리고 소득과 교육의 차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이 경험하는 시간은 취업여부가 고려된 상황에서도 자녀와 가사활동, 심지어는 여가, 통신과 같은 여러 활동영역과도 연계하여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의 구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시간정서에서의 젠더차이 가설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앞서 취업한 남녀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시간압박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상기해 볼 때, 한국의 남녀가 고민하는 바쁜 생활의 원천은 그 내용이나 주제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예상외로 차이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남녀가 경험하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주7일은 매우 다르다고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남성의 시간압박은 온전하게 직업역할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직업과 가족을 병행함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특히 취업한 여성이 역할 과부화로 인한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현재의 직장/가족 환경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생활만족,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Schneider and Wait, 2005)을 뜻한다.

둘째,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시간이 상이한 역할과 활동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간에도 시간을 조율할 여지가 줄어들고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는 것을 내포한다. 특히 남성들의 시간이 직업역할이라는 공적 영역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시간조율(synchronizing)을 고스란히 여

성의 몫으로 부담하게 됨을 시사한다.

끝맺기에 앞서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생활 시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관련이 있게 나타난 행위 및 개인 특성과 시간 정서간의 인과적 연계를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시간에 대한 정서 역시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시간을 부족하게 지각하는 상황이나 시간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종속변수가 가지는 제한점과 더불어서 독립변수였던 노동시간, 여가시간과 같은 시간변수들을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면서 연속변수가 아닌 범주변수로 구성하여 각 활동영역과 시간압박정서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점이었다. 또한 남성 집단내, 여성 집단내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실제 성차 논의에서는 중요한 제한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즉, 여성 집단 내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시간압박 수준이나 그 관련요인도 매우 다를 여지가 있다. 또한 동일한 비취업 집단내에서는 실직자, 은퇴자, 구직자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의 활용양상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성별 집단내차이와 같은 구체적인 집단별 비교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과 변수들 그리고 이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소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이 연구는 시간압박에서의 성차에 보다 집중하였다. 향후 시간압박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시도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제한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성에 따른 시간압박이 취업여부와 복합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서구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만, 취업한 남녀만을 살펴본 분석에서는 취업여성이 취업남성보다 약간 더 시간 압박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취업효과가 성별차이 효과를 넘어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간압박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남녀가 유사한 수준으로 시간압박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행위나 내용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남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생활과 연관지어 판단해 볼 때 가족구성원간의 시간조율이 어렵고 그와 관련된 개개인 갈등이 클 수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부부를 쌍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만으로 부부의 시간압박의 차이, 혹은 그

상호성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참여야 하는 가족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가족역할과 관련해서 남녀가 지각하는 시간압박,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녀의 시간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남성의 제도화된 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국내자료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가 지나친 괴리를 갖지 않게 할 수 있게 하고,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은 가까워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수택 (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3): 503-529.
- 김정석 (2005) “한국중년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2-201.
- 김진욱 (2006) “한국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여름): 149-177.
- 문숙재 · 윤소영 · 윤지영 (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가정지향적 여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3(1): 31-39.
- 박수미 · 선보영 · 김진욱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도 · 은기수 · 오만석 · 김복수 · 박수미 · 이윤석 · 김정석 (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 손문금 (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유소이 · 최윤지 (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이기영 · 송혜림 · 이승미 · 문지선 · 송지원 (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

- 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1.
- 이기영 · 이승미 (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3): 11-26.
- 이기영 · 조희금 · 김외숙 · 이승미 · 홍두승 · 조홍식 · 김유경 · 김주희 (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이승미 · 이기영 (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9-142.
- 이승미 · 이기영 (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진미정 (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2.
- 차승은 (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한신갑 · 박근영 (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여가활동을 통해 본 2005년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한국사회학》 41(2): 211-239.
- Basner, M., Fomberstein, K. M., Razavi, F. M., Banks, S., William, J. H., Rosa, R. R. and D. F. Dingess (2007) “American Time Use Survey: Sleep Time and its Relationship to Waking Activities” *Sleep* 30 (9): 1085-1095.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of LXXV* (September), 493-517.
- Bianchi, S. M., Casper L. M. and R. B. King (2005)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New Jersey: Lawrence.
- Bianchi, S., Robinson J. P. and M. A. Milike,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Bittman, M.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65-189.
- Daly, K. J. (1996)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 _____ (2001)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ed.) Oxford: Elsevier Science.
- Elias, N. (1992) *Time: An Essay*. Oxford, UK: Blackwell.
- Ferree, M. M. (1990) “Beyond Separate Sphere: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66-884.
- Folbre, N. and J. Suh (2009) "To Do or To Buy?: Time Devoted to Outsourcing in the U.S" Paper presented in American Time Use Research Conference in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 Hendricks, C. D. and J. Hendricks (1976) "Concepts of Time and Temporal Construction among the Aged, with Implication for Research" In J.F. Gubrium (ed.)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pp. 13-49).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Hochschild A. R. (1989) *Second Shift*. New York: Penguin.
- Maines, D., and M. Hardesty (1987) "Temporality and Gender: Young Adults' Career and Family Plans" *Social Forces* 66: 102-120.
- Mattingly, M. J. and L. C. Sayer (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Nomaguchi, K. M., Milke, M. A. and M. B. Suzan (2005) "Time Strai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 Dual Earner Mothers and Fathers Diff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 756-813.
- Robinson, J. P. (1990) "The Time Squeeze" *American Demographics* 12: 30-33.
- Schneider, B. and L. Wait (2005) "Timely and Timelessness: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Bianchi, S.M. Casper, L.M. & King, R.B. (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pp. 67-7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Thomson, L. and A. J. Walker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West, C., and D. H. Zimmerman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 125-151.

Who is the Busiest in Korea?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in Time Pressure

Seung-Eun Ch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get answers to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o are the busy people in such a speedy society like Korea? How the daily schedules of busy people might look like? What is the priority of activity that appear in their schedules?, And what is the gender difference? The sample of study came from the 2004 Korean Time Diary Data which have been collec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ample consisted of 11,976 married men and women, whose age range from 25-54 (women 49.7% of the sample). Dependent variable was time pressure measured in one item question with 4-likert scale.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he amount of time in work/family role and other relevant activities were considered as well as gend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us that men perceived more time deficit compared to women. Especially, employed men were the most time poor group, followed by employed women, unemployed women and unemployed men.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though there were similarities in the impact of relevant factors, men's time pressure were tightly linked with their work role and social status, while women's time pressure were responsive to both their role as a mother and as a worker. Nowadays, Korean fathers appear to face new expectation that they need to be involved in family just like mothers do. However, men and women still seems to traverse through different time path, which may create both burden and conflict to either party. Policy implication and detaile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Time deficit, Time pressure, Gender difference, Time budget, Time use